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

박인숙*, 오재우**, 김양신***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Perceived Nurse's Communication Style on Admitted Children Mother's Stress and Coping

In Sook Park*, Jaewoo, Oh**, Yang- Sin Kim***

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Dept. of Nursing, Moonkyoung University***

요 약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간호서비스의 개선 및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관성 조사연구로서,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으며, D시에 소재한 E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피어슨 상관계수,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간호사의 비권위적 스타일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은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친화적인 태도의 의사소통 기술과 정보 제공적 태도의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사소통 기술들은 체계적인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 어머니, 간호사

Abstract The basic data will be provided for increasing the coping efforts and for decreasing the improvement of nursing services and stres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nurse's communication styles on the stress and coping effort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 This study is the correlation research, and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3 until December, and it was based on 196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 in the pediatrics ward of E hospital in D city 196.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the frequency, percentage-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analysis method. As the result of the study, about the effects of the nurse's perceived communication styles on the stress and coping effort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 the nurse's non-authoritative communication style had the biggest effects on the stress,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those variables was 30.1%. In conclusion, in order to decrease the stres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 and to enhance coping efforts, the nurses should sublate the authoritarian attitude and they should show the communication skills of friendly attitude and communication skills of the informative attitude. These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to be maintained and enhanced continually through the systematic communication enhancement program.

Key Words : Communication, Stress, Coping, Mother, Nurse

Received 20 March 2014, Revised 11 April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Jae-Woo Oh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Email: unasyn7@ch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질병 경험은 아동은 물론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큰 사건이다[1]. 더구나 입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매우 놀랍고 고통스러운 일이다[2].

아동이 급성질환이나 장애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함께 병실에서 생활하는 등 가족 기능이 변화되어 가정의 일상적인 평형상태가 깨어지고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등이 초래되며, 특히 가족 중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는 그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인하여 공포, 좌절감 및 무기력 등의 불안한 정서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된다[3].

많은 학자들은 부모의 이러한 정서반응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 능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전달되어 아동의 회복 및 정서안정, 나아가서는 성장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4]. 입원한 아동은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녀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는 환아에게 적절한 적응과 질병치료,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5].

소아과 간호사는 입원한 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간호해야 하므로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입원한 아동과 그 가족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간호에서는 어머니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어머니가 함께 병상생활을 하며 환자 간호에 참여하는 것이 입원한 아동이나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이나 대처양상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6].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노력은 상호교류적인 변수들로서 개인이나 환경, 어느 한 차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처노력이란 당면한 문제 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McCubbin 등[7]은 대처노력에 관하여 첫째, 가족의

통합, 행동,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의를 하는 대처 둘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 심리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대처(유지하는 대처), 셋째, 다른 장애부모나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한 의료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대처하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대처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어른의 정서, 특히 부모의 정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모가 그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때 그들 자녀의 회복을 잘 도울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양육 및 가족건강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대처노력이 환자의 회복과 가족의 평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대처노력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동안 입원 환자 및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심리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어서 정서적지지가 필요한 환자들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8]. 그러나, 환자가 아동인 경우 간호사는 비언어적, 언어적 정보, 부모로부터의 정보,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아동을 사정하게 된다[9]. 부모는 간호대상자인 아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며, 입원기간 동안 아동의 간호에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부모-아동-간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량역할과 통역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10]. 그러므로 간호사와 아동의 의사소통에는 부모가 참여해야 하며 간호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간호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환자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마찰을 중재할 수 있다[12]. 또한 환자 부모는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사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인지를 평가하게 되며[13], 신뢰를 주는 의사소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료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9]. 즉 아동을 간호하기 위해 간호사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로써 아동과의 관계형성도 원만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환자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며, 간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는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간호서비스의 개선 및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아동의 입원 생활 적응, 치료와 회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노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3)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입원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노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에 소재한 E 소아전문병원의 병동에 입원한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power 0.95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가 89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수를 정하였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어머니인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어머니는 제외하였으며, 폐렴, 위장관염 등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은 퇴원하기 하루 전에 시행되었다. 설문이 퇴원하기 하루 전에 시행된 이유는 입원하는 1일째에는 입원으로 인한 낮은 환경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여유가 없으며,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 200명 중 미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19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측정도구는 정수연(2007)이 개발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김세현[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정보 제공적 의사소통 스타일 5문항, 친화적 의사소통 스타일 6문항, 비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각각의 스타일 문항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들이 해당하는 스타일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1$ 이었다.

2.3.2 입원 환자 어머니 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옥남(1998)이 개발한 '구순 구개열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문호진[16]이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0$ 이었다.

2.3.3 대처노력 측정도구

입원 환자 어머니의 대처노력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는 McCubbin과 Patterson(1981)이 개발한 CHIP(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a)를 바탕으로 오진아[17]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8$ 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노력하는 편이다' '항상 노력한다' 순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처노력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대처노력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대처노력 I :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의 통합, 협동,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 의 등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 대처노력 II :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존중 등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 대처노력 III :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의학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료진과의 상담 또는 부모들과의 모임 등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부터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IBM, Americ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대처노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대처노력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지각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은 단계선택이나 전진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추진선택의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변수를 제거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 환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30-34세가 92명(46.9%), 29세 이하가 52명(26.5%), 35세 이상이 52명(2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는 대학이상이 146명(74.5%), 결혼기간은 1-3년이 84명(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있다가 126명(64.3%), 가사 조력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가 132명(67.3%),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194명(99.0%), 거주지는 아파트가 144명(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은 300-400만원이 76명(38.7%)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52명(77.5%),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원만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8명(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입원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에서 12-23개월이 64명(32.7%), 11개월 이하가 42명(2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아가 110명(55.6%), 출생 시 체중은 3-3.5Kg이 98명(50.5%),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136명(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입원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1회가 106명(54.5%), 병명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가 194명(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	≤29	52	26.5
	30-34	92	46.9
	≥35	52	26.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0	25.5
	Over university	146	74.5
Marriage during (year)	1-3	84	42.9
	4-5	70	35.7
	≥6	42	21.4
Job	Yes	126	64.3
	No	70	35.7
housework helper	Yes	64	32.7
	No	132	67.3
Family	Nuclear family	194	99.0
	large family	2	1.0
Religion	Yes	152	77.6
	No	44	22.4
A place of residence	Apartment	144	73.5
	House	36	18.4

	Others	16	8.1
Monthly income (10,000won)	<300	34	17.3
	300-400	76	38.7
	400-500	40	20.4
	≥500	46	23.4
Health condition	Health	152	77.5
	So	30	15.3
	DO not health	12	6.1
	Disease	2	1.0
Family relation	Perfection	188	94.9
	So	8	4.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Month)	≤11	42	21.4
	12-23	64	32.7
	24-35	34	17.3
	36-47	24	12.2
	48-59	16	8.2
	≥60	16	8.2
Sex	Men	110	55.6
	Women	86	44.4
Birth body weight	<2.5kg	10	5.2
	2.5-3kg	36	18.6
	3-3.5kg	98	50.5
	≥3.5kg	52	25.8
Birth order	First	136	68.7
	Second	56	28.3
	Third	4	3.0
Number of hospitalized	1	106	54.5
	2	58	29.3
	≥3	32	16.2
Name of disease recognition	Yes	194	98.0
	No	2	2.0

〈Table 3〉 Communication style, stress and coping of mothers

Variable		Min	Max	Mean	SD
Communication style	Information providing	2.00	5.00	4.04	0.62
	Friendly	2.50	5.00	4.01	0.53
	Not authority	1.67	5.00	3.65	0.90
	Total	2.90	5.00	3.90	0.48
Stress		1.39	3.35	2.62	0.37
Coping	Coping I	2.44	4.00	3.06	0.30
	Coping II	2.27	3.93	2.90	0.29
	Coping III	2.38	3.75	3.00	0.28
	Total	2.43	3.67	2.99	0.25

3.2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 정도

본 연구에서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5점 만점에 평균 3.9점 이었다. 하위 척도별로 살펴보면, 정보 제공적 스타일이 4.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화적 스타일이 4.01점, 비권위적 스타일이 3.65점 순이었다.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다. 대처노력은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처노력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99점으로 나타났다. 각 대처 노력의 평균은 4점 만점에 대처노력 I 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처노력 III이 3.00점, 대처노력 II 2.90점을 나타냈다<Table 3>.

3.3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 간의 상관관계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대처 노력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친화적 의사소통 스타일은 대처노력 I, 전체 대처노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비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은 스트레스와는 부정 상관관계를, 대처노력 I, 대처노력 III, 전체 대처노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에는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1%였다. 대처유형 1에는 비권위적 스타일이 영향을 나타냈으며 설명력은 16.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대처노력 정도를 살펴본 바 간호사의 비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이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tyle, stress and coping

	Information providing	Friendly	Not authority	Communication total	Stress	Coping I	Coping II	Coping III	Coping total
Information providing	1.00								
Friendly	.77***	1.00							
Not authority	-.011	.10	1.00						
Communication total	.71***	.77***	.67***	1.00					
Stress	-.08	-.09	-.55***	-.40***	1.00				
Coping I	.12	.22*	.36***	.35***	-.23*	1.00			
Coping II	.17	.19	-.06	.11	-.06	.60***	1.00		
Coping III	.08	.18	.25*	.25*	-.26**	.65***	.56***	1.00	
Coping total	.14	.23*	.21*	.28**	-.21*	.88***	.84***	.85***	1.00

Analysis metho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Effect of Perceived Nurse's Communication Style on Admitted Children Mother's Stress and Cop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p)	R ²
Stress	Not authority	-.227	.035	-.548	-6.422(.000)***	.301
	Friendly	.106	.055	.182	1.927(.057)	.160
Coping I	Not authority	.112	.031	.338	3.581(.001)**	
	Friendly	.099	.058	.173	1.717(.089)	.003
Coping II	Friendly	.094	.053	.174	1.778(.079)	.097
	Stress	-.178	.073	-.240	-2.444(.016)*	
Coping total	Friendly	.101	.048	.208	2.111(.037)*	.088
	Stress	-.128	.066	-.191	-1.940(.055)	

Analysis method : Regression analysis (In regression analysis, there are cases with no step wise or notable variable in cases of advancement. Thus drive-selection method was chosen, and variables were eliminated using the significance level of 0.1 as the standard.)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스트레스, 대처노력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5점 만점 중 평균 평점이 3.9점이었다. 이는 노주란[18]의 연구에서 입원환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평균 평점이 4.29점, 이연선[19]의 연구에서 외래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4.09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입원 아동의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의료분야가 서비스를 강조하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대상자들 인식이 변화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 병원의 입원 환자 보호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중 2.62점으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영숙[20]의 연구에서 2.42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옥남[2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점수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조결자[22]의 문헌에서도 아동은 다른 연령에서보다 불안 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대응기전이 결여되어 있어 입원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아동의 입원은 아동 자신 및 가족 전체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되며, 어머니는 입원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

스를 받게 되고, 특히 급성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원 초기 아동에게 행해지는 주사 및 검사등의 사건들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10]. 이런 관점에서 입원과 같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입원 환자 어머니의 대처노력 점수는 4점 만점에 2.99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처노력별 유형 점수는 대처노력(가정의 통합, 협동,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의 등을 위한 노력) 평균 3.06점, 대처노력 III(의학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료진과의 상담 또는 부모들과의 모임 등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노력)은 평균 3.00점, 대처노력 II(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존중 등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는 평균 2.90점순이었다. 이는 오진아[17], 유옥남[21], 노난이[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처노력 유형 II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은 어머니가 다른 유형의 대처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대처노력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처노력 I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은 핵가족의 유형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인 남편의 지지가 높아지고, 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료진과의 상담보다는 가정의 통합이나 협동 등을 통한 노력에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입원 환자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대처노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과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환자의 상태나 검사, 처치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경청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경우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대처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에는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1%, 대처유형 1에는 비권위적 스타일이 영향을 나타냈으며 설명력은 16.0%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의

사소통 스타일이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대인 관계 형성을 통해 간호목적의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24]으로, 간호라는 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고 제공되므로, 의사소통은 간호행위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져 왔다고 이명선[25]은 보고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환자의 문제 및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마찰을 중재할 수 있으며[12], 불안을 감소시키고 순응도나 치료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Hampe[26]는 가족들의 죄의식과 불안, 스트레스등은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진단 검사 및 의료기술 등을 환자에게 가치 있게 이용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또 믿음으로써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모의 죄의식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의료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때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원 환자의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입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상담 등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대처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 어머니들의 정보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정보 제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감하며 격려하는 등의 친화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간호사가 권위적인 의사소통을 구사할 때 입원 환자 어머니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권위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은 지양하고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권위적이고 친화적이며 정보제공적 의사소통 스타일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환자 부모와 간호사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간호중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은 간호사의 정서적 특성이 고려되어진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긍정

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의 입원은 환자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입원기간 동안 대처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호사들은 권위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을 지양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이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친화적, 정보제공적 스타일의 의사소통 형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런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환자 어머니와 간호사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대상자가 대진시에 소재한 소아전문병원의 입원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원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연구와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봄으로써 입원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대처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H. K. Kang, B. S. Kwon, J. S. Kim, Y. H. Kim, & K. S. Baek, *Child Health Nursing*. Seoul: Juugdang, 2002.

[2] D. Y. Won., *Effects of providing invasive procedure Nursing information on the parents coping*.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9.

[3] Kristensson-Hallstrom, I., Parental participation in pediatric surgical care.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Vol. 71, No. 5, pp. 1021-1029, 2000.

[4] Y. S. Moon, *A study on emotional anxiety of mothers who have hospitalized*. A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1989.

[5] Palmer, S. J., Care of sick children by parents: A meaningful ro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8, pp. 185-19, 1993.

[6] Y. M. Su, I. S. Kwon, M. O. Jo, & W. J. Choi., *Nursing needs of hospitalized children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5, No. 1, pp. 59-69, 1999.

[7] McCubbin, H. R., McCubbin, M. A., Patterson, J. M., Cauble, E. A., Wilson, L. R., & Warwick, W., *CHIP-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An assessment of parental coping patterns in the care of the chronically ill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No. 2, pp. 359-370, 1981.

[8] Eide, H., Quera, V., Graugaard, P., & Finset, A., *Physician patient dialogue surrounding patient's expression of concern: Applying sequence analysis to RIA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9, pp. 145-155, 2004.

[9] D. H. Kim., *Healthcare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1, No. 1, pp. 1-6, 2006.

[10] Y. H. Jo, *Mothers reaction to hospitalization of children*. 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4.

[11] Plumridge, E., Goodyear-Smith, F., & Ross, J., *Nurse and parent partnership during children's vaccination: A conversation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6, pp. 1187-119, 2009.

[12] Salmon, P., & Young, B., *Dependence and caring in clinical communication: The relevance of attachment and other theor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74, No. 3, pp. 331-338, 2009.

[13] Coffey, M., & Hewitt, J., *You don't talk about the voices: Voice hearer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talk about responding to voice hearing experienc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7, No. 12, pp. 1591-1600, 2008.

[14] K. J. Lee, *Communication and Nursing*(3rd ed). Seoul: Sinkwang. 2011.

[15] S. H. Kim, Nurse's communication, trust in nurses,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inpatients. A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13.

[16] H. J. Moon, & S. R. Shin, Study on Determinants of Nursing Needs of Mothers with Hospitaliz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0, No. 2, pp. 234-243, 2003.

[17] J. A. Oh, A Study on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Coping Effort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A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1997.

[18] J. R. No, Relationship of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to patient satisfaction at hospital. A master's thesis, Pusankatolic University, 2012.

[19] Y. 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communication and outpatient's trust-satisfaction. A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2011.

[20] Y. S. Moon, A study on the stress and coping effort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Journal of parent-child health*, Vol. 10, No. 2, pp. 147-15, 2007.

[21] O. N. Yu, A study on the stress of cleft-lip or/and cleft-palate children's mothers and their coping efforts. 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8.

[22] K. J. Jo, J. H. Song, I. Y. Yui, I. S. Park, E. S. Park, M. W. Kim, H. S. Kim & H. S. Sin, *Pediatric Nursing*. Seoul: Hyunmoonsa, 2012.

[23] N. L. No, A study on family stress of cleft-lip or/and cleft-palate children's parent's and their coping efforts. 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6.

[24] Travelbee, J., *Interpersonal Aspect of Nursing*(2nd ed). Philadelphia:F.A.Davis Company, 1971.

[25] M. S. Lee, Conversation Analysis for Improving Nursing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No. 5, pp. 772-780, 2007.

[26] Hampe, S. O., Need of the grieving spouse in a Hospital Setting. *Nursing Research*, Vol. 24, No. 2, pp. 113-119, 1975.

박 인 숙 (Park, In Sook)



- 197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7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0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7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자 가족, 부모- 자녀관계
- E-Mail : ispark@cnu.ac.kr

오 재 우 (Oh, Jae Woo)



- 2000년 2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4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2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0년 3월~2012년 11월: 건양대학 병원 간호사

- 2013 3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스트레스
- E-Mail : love_token@hanmail.net

김 양 신(Kim, Yang Sin)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3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00년 2월~2011년 3월 : 건양대학 병원 간호사

- 2014년 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건강관련 삶의 질
- E-Mail : lemon-72@hanmail.net